

세상 즐거움

2010년 11월 17일

본문 말씀: 예레미야 25:9-11

(렘 25:9, 개역)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렘 25:10, 개역)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땃돌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렘 25:11, 개역)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우리 인간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합니까? 사람 대 사람 같으면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서 파악하여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든지 아니면 더욱 약 올려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날씨가 나쁘면 화 내시는 것이고 하늘이 활짝 개이면 하나님이 기분좋아하신다는 표시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이런 식이라면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표정살피기에 정신 곤세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점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터벅터벅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지점까지만 갈 뿐이고, 하나님 또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만나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늘 죄인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기에 예수님의 공로만 높이게 되는데 바로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 유일하게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런 원리로 봐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유다 백성들은 내심 놀라고 섭섭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게 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위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는 아니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 위주로 동거해 오신 겁니다.

즉 사람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운영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하시려는 것은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우기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화만 돌우면서 살아왔는 그 실정을 제대로 공개하시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내놓고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알아 모신다고 했지만 그들의, 심성과 격에 맞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죽이 맞는 지도자 밑에서 자신들의 품성을 되돌아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행세가 곧 평소에 유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던 행세라고 보면 됩니다. 이방민족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에 있어서 모든 행정은 자신의 권력을 절대시하여 신의 자리까지 높이는 겁니다. 여기에 백성들은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이방민족들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대대로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구미에 맞는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자신과 신 사이에 신의 대행자가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등장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자신들은 세속적인 생활을 반복하지만 신의 대리자 되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성스러운 존재자로서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을 특정 한 인물에게 집중해야만이 질서가 잡히는 이유입니다. 신은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청바지 입고 다니지만 천주교의 교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세속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황이나 신부나 수녀나 목사의 복정들은 보세요. 바로 일반인들의 눈에 뭔가 고귀하고 특수한 높은 자리에서 사는 사람처럼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즉 세속과 신성을 중매하는 중간인 같아 보이도록 꾸미게 되는 겁니다.

바로 평소에 유다 백성들이 자기네 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이 동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방나라 왕과 더불어 동거하는 생활방식으로 임해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요소를 약속의 땅으로 몰아내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은 황무지가 됩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왔을 때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손 떼가 묻는 순간부터 이 땅은 더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머물겠다는 이 약속의 땅 손질에 스스로 책임하에 회복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기존의 가나안 땅의 회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땅이 새 하늘과 함께 등장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이 땅의 시간으로 70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70년간 땅을 비워놓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레위기 25:3-5에 보면, “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칠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남긴 말씀이 성취됨이 되돌아오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기어이 자신의 약속은 약속대로 성취될 뿐입니다. 70년의 안식년을 통해서 달성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라서 인간이 저질른 손상된 양만큼 하나님이 나서서 마저 보충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시점부터 70번이나 안식년을 안 지킨 그 첫 번째 안식년이 언제란 말입니까? BC586년에 망한다고 치고 $70 \times 7 = 490(\text{년})$ 이 되니 $586 + 490 = 1076 \text{ BC}$ 라는 계산이 나오니 사시시대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땅은 지상의 시간으로 계산되어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회복시키는 땅은 다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다시 주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새로 정비된 땅은 70년이 아니라 70이레가 되는 겁니다. 이 70이레는 $7 \times 70 = 490(\text{년})$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뜻합니다.

이 지상의 땅은 성도는 잊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2-4에 보면,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박아 죽게 하여 지상의 모든 인간을 죽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단순히 목숨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이 세상에 저주로서 빈틈없이 다 덮쳐진다는 겁니다. 천사들을 사망으로 보내어 조금의 틈도 허용치 않고 저주로 덮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저주로 덮게 되면 여기서 인간들의 숨어있는 죄성들이 뽀족뽀족 튀어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학문과 과학과 철학과 종교와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저주에 항거하여 발악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입니다. 왜 이 쾨찮고 늘 발전을 모색하는 이 인간들의 손뎌 묻은 세상을 불태우려 하느냐고 항의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에서 세상 사는 즐거움을 찾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저주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예레미야-2009/086강-렘25장9-11세상의즐거움-jer101117.mp3>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예레미야-2009/086강-렘25장9-11세상의즐거움-jer101117.avi>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예레미야-2009/086강-렘25장9-11세상의즐거움-jer101117.hwp>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예레미야-2009/086강-렘25장9-11세상의즐거움-jer101117.pdf>

086장-렘 25장9-11(세상의 즐거움)-jer101117-(이 근호목사)

2010-11-19 21:45:57 녹취 : 오용익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9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5:9-11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랍고 치소 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칠십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일일이 다 체크를 하시고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온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찮은 우리가 무슨 재물을 부린다고 해서 흐뭇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면 사실은 우리자신이 피곤해요. 이 행동을 해놓고 먹구름이 끼면 ‘아,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했구나.’ 어떤 행동을 하니까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추면 ‘아, 오늘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구나.’ 이걸 하나 둘 다 헤아리려고 하면 우리가 너무 피곤합니다. 마치 성질 더러운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그 인상 보고 섬기려고 하면 얼마나 긴장이 되고 조마조마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감정이 달라지고 일일이 대응하는 식으로 혼낸다.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우리로서는 이 세상 변화를 다 해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은지 싫은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문제가 해결 됩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 보고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행동, 어떤 재물, 심지어 회개한다고 해도 고함질러도 주님께서는 우리 행동 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지는 않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우리가 터벅터벅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갈 자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까지입니다. 고맙게도 하나님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와 대면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의미 없습니다. 라고 항상 자신을 부인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만 영광 돌리게 되면 어떤 행동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도 그래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상 모든 움직임이 우리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행동 여하에 따라서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내 행동 여하에 따라서 내 교회가 잘된다는 식으로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은 십자가중심으로 확정지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을 나 잘되고 나 좋으라고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좋으라고 예수님 중심으로 일이 잘 된다는 것만 아신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땅의 유대민족을 싹쓸이 할 것이다. 준비된 이방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내가 이 나라를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해놓고 이제 와서 추방시킨다면 갈 곳도 없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자고 이렇게 차갑고 내정하고 비정하고 매물치게 대하는가, 유대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지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 가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은 너무나 자기 즐거움에 탐닉하다 보니 잊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위주로 일한다는 것을 모르고 항상 나 위주로만 생각하다 보니 뭔가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우리는 불평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내 뜻이라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뜻을 주장해서도 안돼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그것이 우리도 좋고 주님도 좋습니다, 할 그 때에 그것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라 할 수 있어요.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땃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결혼식을 앞둔 신랑신부에게는 당연히 섭섭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런 즐거운 소리도 다 훔쳐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훔쳐내 버리고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로 놀렘과 치소거리(수치스러운 놀림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유다나라가 살고 있는 땅은 보통 일반적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땅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이 사시는 땅이기에 동거하는 백성들도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말씀대로 거룩하지를 앗았어요. 물론 그들은 그것을 모르지요. 자신들이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를 모르지요.

그런데 자기를 심판하러 온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동행해야 하느냐, 11절에 보면 70년 동안 동행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우기지만 너희들에게 딱 격이 맞는 사고방식을 가진 왕을 소개해줄게. 그 왕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게 딱 맞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건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사실 맘속으로 너희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노래방이고 나이트클럽이었잖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예수 하지 말고 나이트클럽 주인하고 70년 동안 놀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너희의 본성과 딱 맞다.’고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에 설교자가 비었을 때 열두 제자를 다 모셔다가 선을 봐주세요. 예수님까지 다 포함해서 다 선을 봐도 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세상 즐거움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수천 명이 찾는 것 바위 올라가는 심정과 똑같은 목사가 올 때까지 그들은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정서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이 선볼 때 복음전해서 떨어졌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해서는 안돼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지만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딱 맞는 적합한 목회자다.’ 그러면 유다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은 너희와 죽이 맞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신을 섬기는가, 그것으로 알겠지요.

이방나라 느부갓네살이 신을 섬기는 것과 소위 여호와 섬긴다는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유다나라 여호와를 섬긴다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꼭 같은 겁니다.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이 나오는데 이방왕의 특징은 뭐냐, 백성들의 구미에 맞춰주면 오랫동안 장기집권 한다는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신과 같은 무소불위의 절대자가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신이 되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하가 될 경우에 상심해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서양역사에 있어요. 어떤 교황은 왕에게 무시당했다고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교황의 권위를 내세웠으면 남에게 무시당했다고 죽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이렇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을 신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중간에 들어서는 거예요. 인간들이 원하는 신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신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것을 신성한 것으로 전환하는데 일단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로, 감히 일반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자기주변을 온갖 좋은 것과 화려한 것과 거룩한 것을 칭칭 감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신과 인간 사이에 기념물이 돼요. 여러분이 바티칸의 교황 복장을 보세요. 청바지를 입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장을 교황이 압니까? 역시 모르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청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일반 백성사이에 적어도 어떤 복장을 해야 하느냐하면 금 옷 입고 고깔모자 쓰고 지팡이 쥐고, 그야말로 누가 봐도 고상해 보인다는 모든 폼을 다 잡는 거예요.

이것은 문선명도 그렇게 모든 이단들, 한국교회도 포함해서 다 그렇지요. 신부들 로만칼라 복장도 마찬가지로 목사들이 가운입고 강단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운 안 입고 이런 복장으로 치장을 안 하는 목사는 격에 안 맞고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대행자를 오늘날 일반 교인들이 원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청바지를 입더라도 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면 자기들은 구원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끼리, 죽이 맞는 인간들끼리 잘 놀아라.’ 하는 말이지요. 그렇게 백성들을 이방나라로 보내버리면 그 약속의 땅은 이제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일부러 황무지가 되게 하세요. 처음에 약속의 땅은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황무지가 아니었는데 황무지가 되었다는 말은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의 손때가 묻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순수하지 못하고 이방나라와 같은 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감히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호작질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호작질을 하다 보니 점점 더 그곳을 황무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인위적이고 조작적이고 종교적이고. 예수님의 피로 세상을 적신다는 말은 이 세상을 황무지로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유일하게 접촉하는 저주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단순히 목숨이 끊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그 저주가 이제는 온 우주에 카펫 깔리듯이 깔린다는 말입니다. 어디 한 구석도 빈구석이 없이 저주를 콕 깔아 버렸어요.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스가랴서에 보면 사방팔방 동서남북 네 천사가 한명씩 파견되어서 카펫을 쥐고 잡아당기면 땅 끝까지 저주가 깔끔하게 퍼집니다. 공사 참 잘합니다. 빈틈없이 공사해요. 저주가 없는 구석이 없게 해버려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은 죽은 것이다.(고후 5:14) 그렇게 저주를 깔아놓게 되면 그때부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저주받아야 될 증거들만 툭툭 튀어나와요. 교회세우고 성당세우고 갓 바위 만들고, 인간들이 저주받아야 합당한 죄악들을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황무지예요. 본문에서는 이 황무지를 70년 동안 비워놓습니다.

비워놓고 거기에 홀로 누가 계시는가, 홀로 주님께서 계십니다. 홀로 계시면서 뭘 하시는가, 소위 자기 백성이라는 인간들이 저질러놓은 모든 것을 주님 홀로 원상회복을 시켜요.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데 주님 홀로 변화시키면서 그 땅과 새 땅과의 층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 회복을 시키는데 그 회복은 이 지상의 땅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개발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거기서 새 땅이 나와요. 새 땅이 나오는데 처음에 약속의 땅을 만들 때 어린양의 피를 가지고 약속의 땅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겹쳐져 있던 땅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면서 그 분리되는 기간을 여기서는 70년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그 70년이 뭐로 바뀌는가, 70이레로 바뀌어요. 그러면 70이레란 490년을 말하는 지상의 기간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땅에서 봉 뜨는 땅, 땅에서 뜨는 땅이 있어요. 이 지상의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그 기간이 하늘의 기간으로 해서 70이레라는 새로운 기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본문에 70년이 나오는데 왜 하필 70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11절에 나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칠십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것은 죽이 잘 맞는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있는 동안 입술로는 여호와가 왕이라고 아주 멋들어지게 했다만 섬길 합당한 왕은 느부갓네살이고 딱 너희에게 맞는 것은 갓 바위다, 그 말이지요.

한국교회에 딱 맞는 것은 갓 바위입니다. 갓 바위 섬기고 있으면 아무도 이 약속의 땅에 관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처음에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했느냐하면 이렇게 약속했어요. 레위기 25장 3절에 보면 “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칠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찌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들이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자기 땅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완료가 되고 완성이 된다는 조건하에 그 땅에서 자기 백성들과 안식하겠노라고 사전에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육 년 동안 일하고 칠 년째는 땅을 쉬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육년 동안 일한 것을 통해서 인간의 노동에서 내뱉어지는 죄를 칠 년째는 주님께서 안식년을 통해서 다 거두어서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안식하겠다는 겁니다. ‘죄 지어라.’ 그 말입니다. ‘죄 짓되 일곱 번째 다가오는 해는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라고 했다 해서 일부러 죄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땅에서 인간의 노동과 성질과 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면 그것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다 체험되고 체득이 돼요. 땅을 주게 되면 ‘아 우리가 이런 더러운 본성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낱알이 필터처럼 걸러지는 거예요. 육 년 동안 하고 싶은 대로 맘껏, 장사하고 싶으면 장사하고 사업하고 싶으면 사업하고 목회하고 싶으면 목회하고, 맘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7년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저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육년과 칠년, 안식년 아닌 것의 그 완성은 그들이 열심히 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7번째 돌아오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일하시는 것을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자기 노동을 쉬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여기까지인데 7년째 해는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우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다 같이 보자.’

7년째 해에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손대지 않더라도 저절로 땅에서 무한한 축복이 솟아나오지요. 그걸 통해서 백성들은 뭘 느끼느냐하면, ‘아하,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주시고자 우리와 함께 있구나.’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거두어서 그것을 용서의 열매로 거두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6년과 7년째를 가지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리가 없지요. 인간의 죄 속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죽어도 말씀 안 믿는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레위기 26장에 가면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지키고자 해도 결국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 말은 그냥 흠으로 보이는 이 땅에서 인간의 힘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나올 수가 없는 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70년 동안 하라는 겁니다. 주석가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해요. 레위기 25장에 의해서 6년 일하고 7년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한 번 빠지고 또 빠지고 70번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이 안식년을 안 지킨 횟수가 70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70번을 대신 지켜주면 그 공로로 얻은 땅에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잡히고 난 때부터 소급해서 언제부터 안식년을 안 지켰는가를 조사하는데 유다나라가 망한 것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서 490년을 더듬어 올라가는 식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다윗시대쯤이다 하는데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계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70년이라 하는 것은 사람보고 또 다시 안 지킨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말고 새로운 땅이 회복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70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후에 그들이 왔을 때 ‘과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70년 동안 안식하게 해 줬기에 우리는 두 번 다시 이 땅에 쫓겨날 일이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돌아왔다가 막상 와 보고 ‘우리가 70년을 이해하기를 우리가 안식년 안 지킨 횟수를 따져서 계산한 그것조차도 죄였구나. 70년이 아니고 70이레인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못 지킨 70년 기간을 천국으로 바꾸는 그 기능을 주님께서서는 70이레로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70년 만에 돌아오기는 와요. 돌아오면서 아는 것은 ‘70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70년이 진짜 70년 같으면 돌아오자마자 모든 것이 옛날 490년 이전의 시절처럼 다시 원상회복 되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가는 것은 에덴동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꾸 구약 보면서 회복, 회복 하는데 회복이라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회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간 것은 꾸겨버립니다. 회복할 것이 없어요. 우리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은 것에 대

한 회복밖에 없어요. 평소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6년 동안은 내가 일해서 그렇게 되었고 7년째도 아까우니까 농사하고.

주님께서 6년 동안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7년째 봐야 되는데 그걸 안보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7년째 너희보고 안식하라고 하는 것은 '인생사는 것이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너를 살려줘서 살았다. 그것이 사랑이고 용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편으로 그것이 모아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성은 보장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온 것이 다 주의 은혜였구나. 내가 한 것은 없었구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이 안되더라도 그게 사랑이었다는 말이지요. 이 땅에 대해서 미련 딱 끊으라고. 오늘 제가 글을 장로님께 보냈습니다만 주께서 만든 세계는 내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불멸설이에요. 내세가 아니고 부활의 세계입니다.

부활의 세계와 내세가 다릅니다. 내세는 우리가 역시 잘난 체 하는 것이 내세고 부활의 세계는 우리가 없고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립니다. 인간을 없애버려요. 오직 주님만 계시고 그 주님에 의해서 새로 지음 받은 사람만 모인 곳이 바로 부활의 세계이며 천국입니다. 그 부활의 세계는 내세로 갈 수 없고 오직 가는 구멍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세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위로 받아가면서 힘든 인생 산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헛방입니다. 내세 바라보면서 교회 5십년 6십년 다니면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소리 아무리 들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십자가 모르면 그 내세는 꿈입니다.

소용없는 것을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은 나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세계라는 것을 모르면 그것은 죽어도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 받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 저주받은 매트 위에서 교회 세워서 내세 가지고 장사해먹는 것, 아주 위험한 짓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용서로 살아왔다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부활의 세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시는 일이 협력하여 선을 다 이루는데 우리는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지요. 세상 좋다고 까불다가 다 날아가고 주님한테 다 빼앗길 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새삼 깨달아서 이참에 우리 자신도 없어져도 좋다는,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